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

2010.9.1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 여성의 낮은 임금
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해결을 위해
4.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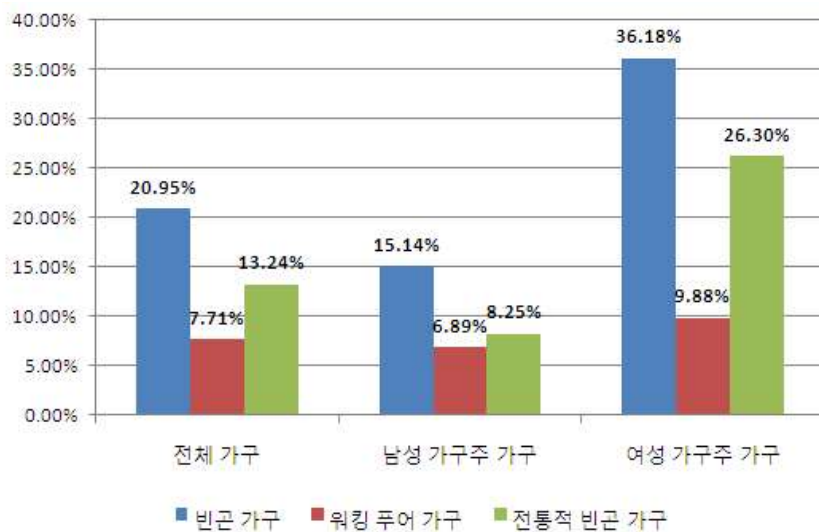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요약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림 1] 가구특성별 빈곤가구 및 워킹 푸어 가구 비중



이 글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빈곤이 더 심각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빈곤가구, 워킹 푸어 가구가 가지는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의 문제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중첩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차별로 인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율, 낮은 임금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여성가구주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가지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성가구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육아 및 보육 지원정책의 경우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등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워킹 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여성가구주 가구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빈곤문제나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촉진 정책과 함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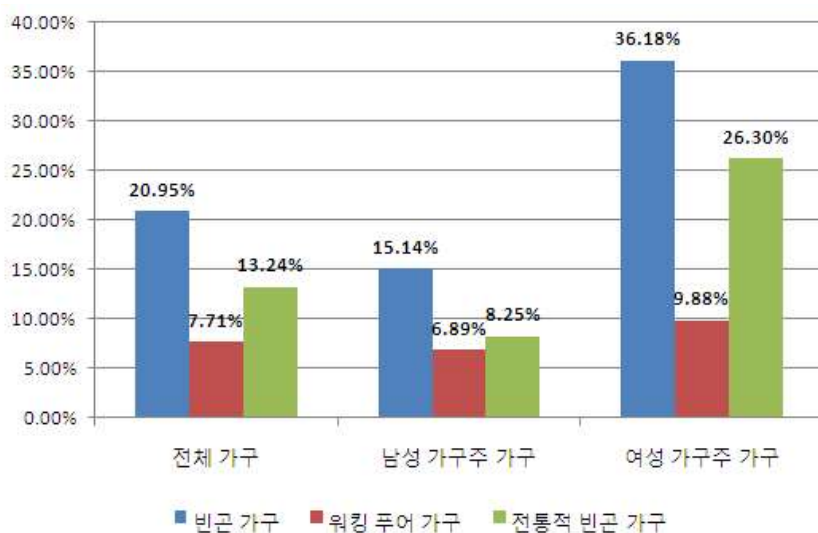
본문

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빈곤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하는 빈곤층인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더 심각한 이유는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7%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4.1%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¹⁾. 고용율 또한 마찬가지로 남성(71.1%)이 여성(49.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가리키

[그림 1] 가구특성별 빈곤가구 및 워킹 푸어 가구 비중



1)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며, 가구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주 소득의 부재는 그 가구를 빈곤상태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6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237만 5천원보다 100만원 정도가 낮았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 또는 워킹 푸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에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해 살펴본다. 여성가구주가 이와 같이 빈곤상태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특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낮은 임금에 대한 접근을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 상태 또는 워킹 푸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간단히 고찰한다.

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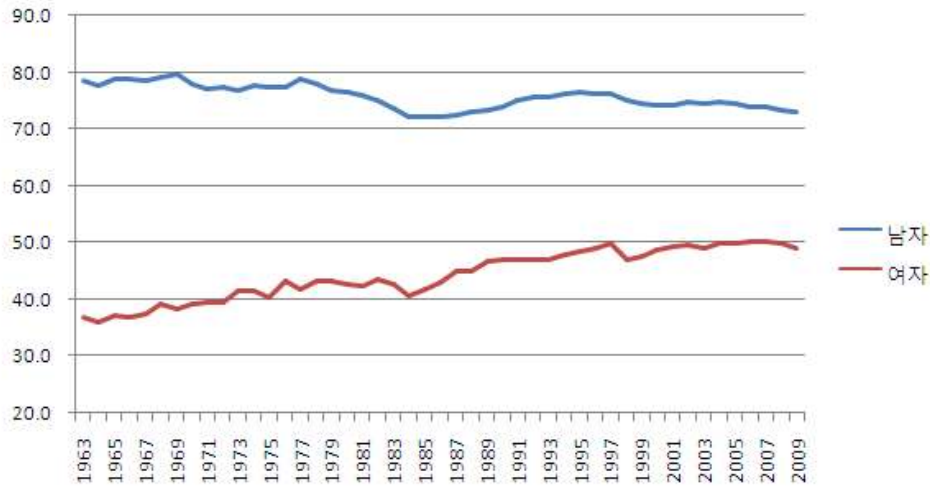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구 내에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가구 내 가사노동 및 육아의 주된 담당자로서 노동공급을 제한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여부와 일자리의 질에 있어 남성과의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낮은 임금으로 표출되며,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특성은 여성가구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중요한 소득원인 가구주가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면, 그 가구는 빈곤상태 또는 워킹 푸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낮은 고용율, 낮은 임금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눈에 띄게 증대

되었다. 그리고 이 후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초 40%가 되지 않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9.0%로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동일한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



※ 1990년대 이전 자료를 보기 위해 구직기간 1주기준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is.kr)

[표 1]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가율 및 고용률(15세에서 64세 인구 기준)(단위 : %, %p)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체	남성	여성	남녀 격차	전체	남성	여성	남녀 격차
덴마크	80.9	84.6	77.3	7.3	78.4	82.4	74.4	8.0
스웨덴	80.7	83.1	78.2	4.9	75.7	78.1	73.2	4.9
프랑스	69.7	74.3	65.2	9.1	64.6	69.2	60.1	9.1
독일	75.9	82.1	69.7	12.4	70.2	75.9	64.3	11.6
영국	76.8	83.4	70.2	13.2	72.7	78.5	66.9	11.6
미국	75.3	81.4	69.3	12.1	70.9	76.4	66.5	9.9
이탈리아	63.0	74.4	51.6	22.8	58.7	70.3	47.2	23.1
일본	73.8	85.2	62.2	23	70.7	81.6	59.7	21.9
한국	66.0	77.3	54.7	22.6	63.8	74.4	53.2	21.2
OECD	70.8	80.5	61.3	19.2	66.5	75.7	57.5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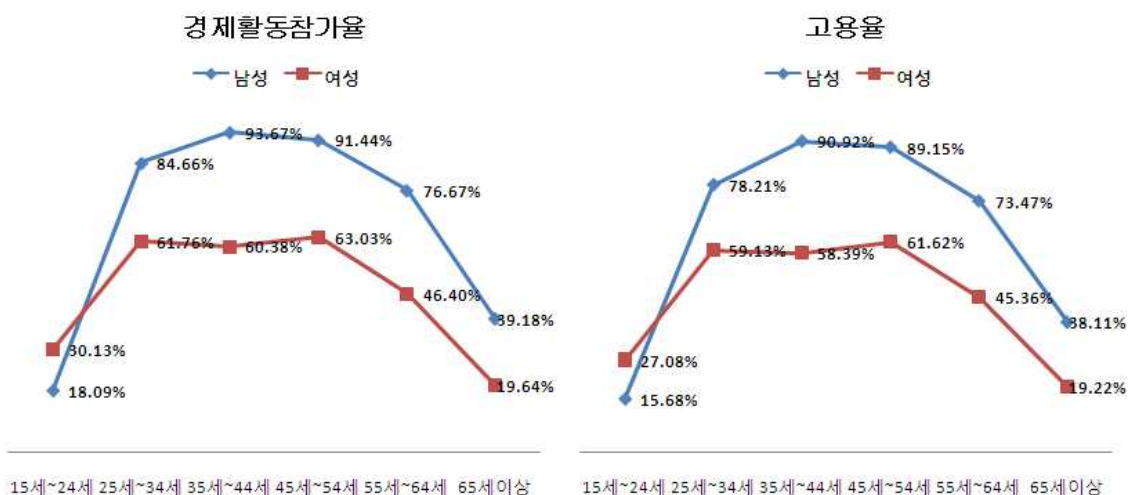
※ 단, 스웨덴, 영국, 미국은 16세에서 64세 인구 기준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OECD, 2009)

하지만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은 여전히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의 증가속도마저도 둔화되고 있다. [표 1]은 2008년 OECD 일부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이다. 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남부유럽국가인 이탈리아,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남성과의 격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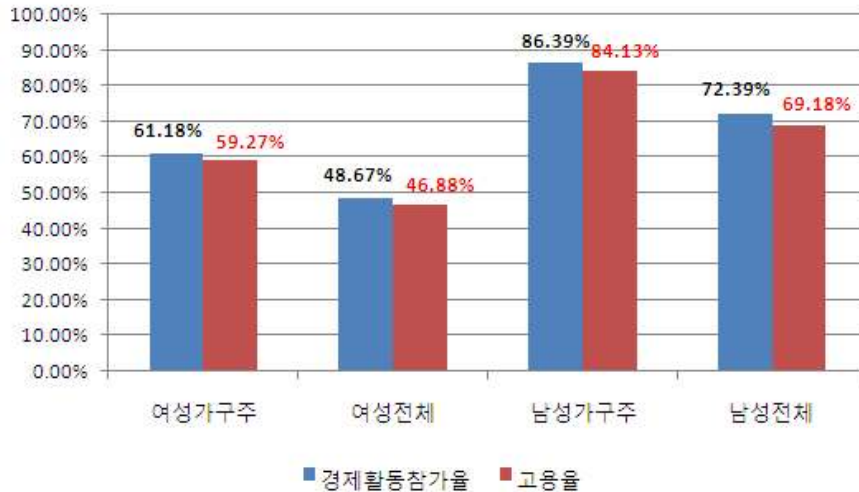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을 보면, 24세 이하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이 여성보다 더 높으며, 그 중에서도 35세~44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에서 남성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여성은 앞 뒤 연령대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 후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가사노동을 담당하지 않아도, 출산을 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 육아를 담당하지 않아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들이 기혼여성, 혹은 해당 연령대의 여성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2010년 3월)



[그림 4]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이와 같은 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나아가 가구의 대표이자 주요 소득원인 여성가구주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구 내에서 가사활동이나 육아를 담당하지 않고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에 나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가구주를 비교해보아도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은 여성전체 수준보다는 높았으나, 남성가구주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남성전체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구 내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구의 중요 소득원으로써 일을 하려 해도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 그 가구는 빈곤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계산해보면, 가구주가 일을 하는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10.58%인 반면, 가구주가 일을 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56.49%가 빈곤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일을 하는 가구의 빈곤율은 21.46%였지만, 일을 하지 않은 가구의 빈곤율은 57.08%였다. 이처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율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여성가구주가 많은 현실을 나타내는 수치이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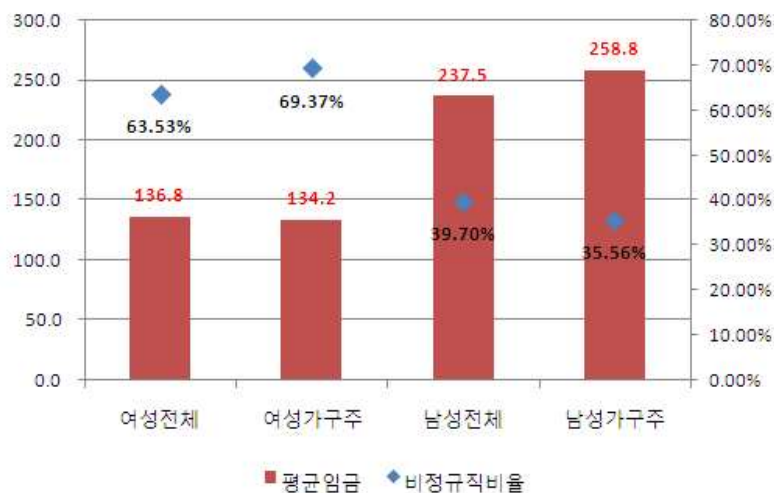
■ 여성의 낮은 임금

여성들의 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다. 이러한 특성이 여성가구주에게로 이어질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또는 워킹 푸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6만 8천원으로 237만 5천원인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10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일자리 특성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계산해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기준을 따를 경우)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9.85%이다. 이 중 남성노동자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39.70%인 반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3.53%나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22.9만원이고, 정규직의 평균임금이 265만 9천원임을 고려한다면, 여성노동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에 있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가구주인 여성노동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인 여성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들 중 69.37%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다([그림 5] 참조). 오히려 여성전체 평균 비정규직비율보다 더 높았는데, 이들 여성가구

[그림 5] 월평균 임금 및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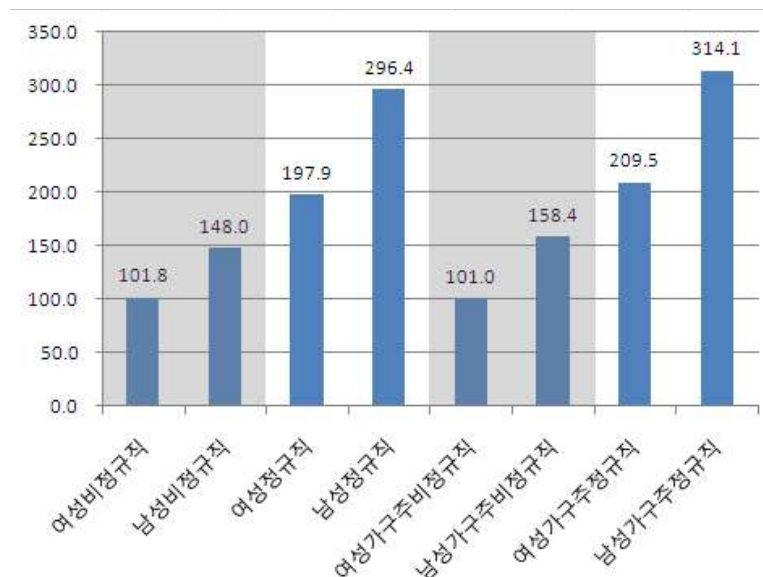
주는 남성가구주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여성전체 평균보다도 임금수준이 낮았다. 또한 남성의 경우 가구주의 소득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가구주의 소득이 여성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장년층 여성의 경력단절과 비정규직화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일자리 특성에서 따른 부분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여성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차별과는 별도로, 같은 비정규직에 종사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은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남성과 여성,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별 비정규직임금과 정규직임금을 계산한 결과이다.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정규직 여부와 함께 연령, 교육수준, 산업, 노동시간과 같은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은 여성가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의

[그림 6] 월평균 임금



특성이 여성가구주 노동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의 낮은 임금은 앞서 가구주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빈곤의 원인이 된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 내에서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을 하는데도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워킹 푸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여성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임금근로자인 여성가구주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 2천원이고, 비정규직인 경우 101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성가구주의 낮은 소득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상태, 워킹 푸어 상태에 있도록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낮은 임금 측면에서 접근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여성노동의 특성이 여성가구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이유는 남성가구주 가구에서 겪는 빈곤문제를 동일하게 겪으면서, 가구의 중요한 소득원인 여성가구주가 사회로부터, 노동시장으로부터 받는 차별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여성가구주의 경우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빈곤을 벗어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워킹 푸어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빈곤가구의 여성가구주와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제도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는 육아와 보육 모두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중장년층 여성가구주가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와 고용을 높이는 것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워킹 푸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범위를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확대시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정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인상을 통한 비정규직 임금 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을 상승시켜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대상을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빈곤문제, 워킹 푸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있고,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 각각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여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또한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이 글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이나 워킹 푸어 상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빈곤이 더 심각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빈곤가구, 워킹 푸어 가구가 가지는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의 문제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중첩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가구 내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낮은 임금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가구의 중요 소득원인 여성가구주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가지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촉진 정책과 함께,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해 이들을 조속히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원인 외에도, 여성가구주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적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문제 일반, 여성문제 일반의 차원에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